

Passage: Galatians 3:1~5

Sermon Title: The most foolish thing we can do.

- Defining foolishness

We know that, we are all sinful, and this means we often do foolish things. How do we define foolishness, and when do we normally use the word? To tell you a short story that well describes the act of foolishness... There was a mother who had a 3 years old child, and she was a strong advocate of natural medicine, and this means she would defy to trust and use any kind of western medicine. There was one occasion where her 3-year-old boy was seriously sick with fever. Obviously, she refused to take her boy to the doctor and she was trying all these mythical unverified natural treatment on her boy.

Unfortunately, the boy's condition was getting worse, and eventually the boy's father took him to emergency to save his child. As the doctor checked his condition, the doctor rebuked the father for not bringing the boy in earlier, and he said, further delay could have claimed the boy's life.

We would not hesitate to describe the mother's action as foolish, because, while a quick visit to the GP and taking a Panadol or antibiotic could solve the problem. She was insisting and relying on the **non-verified** way of treatment that eventually put the boy's life in great danger.

Now, when we look at today's passage, the Galatians were committing the same kind of foolishness (Paul is using the word "foolish" twice in today's passage). Their big problem was that, although the way of salvation was revealed to them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they were refusing this way of grace, and they were instead choosing a different way, that will lead them into destruction.

And I believe,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Galatians, but we can also commit the same kind of foolishness. So for today's sermon, I will first talk about the nature of the problem that Paul is pointing, and then I will talk about Paul's resolution of how we can avoid such foolishness.

- 어리석음의 정의.

우리는 보통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며,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나요? 어리석음을 잘 묘사하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3 살짜리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양의학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연치료'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아이가 고열과 함께 매우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검증되지 않은 자연적 치료를 아이에게 행했으나, 아이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아이를 본 의사는 왜 이렇게 아이를 늦게 병원에 데려왔냐는 꾸짖음과 함께, 아이가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말합니다.

우리는 주저 없이 이런 어머니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근처 의사에게 데려가 간단한 해열제나 항생제를 처방받아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고집해 결국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의 교인들 또한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두번이나 사용합니다) 이들은 구원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밝히 이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한채, 잘못된 구원의 길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의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은 문제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The benefit of God's salvation: Life in Spirit.**

So, if we look from Galatians chapter 2, Paul introduce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which is the key doctrine to understand God's salvation (to briefly mention again, what it means by "we are justified by faith", it is God declares undeserving sinners as "righteous" before him. And the reason we can be declared righteous is because, we trust and rely on the merit of Christ alone, who lived the perfect life, and pay the penalty of our sin on our behalf on the cross).

Now, in light of this understanding, Paul from chapter 3, begins to talk about, the practical meaning of this salvation, where it involves living a new life in the Spirit.

So, if we look at verse 2 and verse 5, Paul is suggesting God as the "giver" or the "supplier" of the Spirit. For example, when we look at verse 2, rhetorical question of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He is suggesting God as the "giver" of the Spirit. And then in verse 5, Paul asks another rhetorical question of "Does he who supplies the Spirit to you...do so by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Again here, Paul is suggesting God as the supplier of the Spirit.

So, as Paul is mentioning God as the supplier of the Spirit, he is saying that God's salvation is about living a life in the Spirit, and in fact, life in Spirit is central to Paul's description of God's salvation.

When we look at Galatians chapter 5, Paul further explains, what it means to live a life in the Spirit: in chapter 5, Paul writes that life in the Spirit is about turning away from our old, sinful desires, and living with new desires of the Spirit. And as we live with new desires, it is about bearing the fruit of the Spirit, such as love, joy, peace, and kindness. From the broader context of the bible, it is the Holy Spirit who leads us to be grieved by our sin, and leads us to repentance, and enables us to confess Jesus as Lord (1 Cor 12:3).. He is the one who leads us and helps us to understand the mystery of the gospel. And he is the one who empowers us to live a life pleasing to God.

e baptizes, indwells, seals, fills, and empowers Christians to live a life pleasing to God. So again, we see life in the Spirit is really the central aspect of God's salvation

- **구원의 유익: 성령 안에서의 삶.**

우리가 먼저 2 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핵심 교리인, "칭의 교리"에 대해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칭의 교리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을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며, 이런 선언의 기반은,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3 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원받은 삶에 대해 묘사하기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 절과 5 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할 때, 성령을 "주시는 자" 혹은 "공급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 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이나"라고 말씀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령을 받는 입장으로 말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5 절을 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 장을 보더라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삶에서 돌아서, 새로운 마음과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사랑, 기쁨, 평안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란,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고전 12:3)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 구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

And now, when Paul mentions in verses 2 and 5 that, it is by faith, we receive the Spirit. This is to say that, it is by faith we can enjoy this wonderful benefit of salvation. In other words, Paul is saying that this wonderful gift of life in Spirit is the result of the gospel of free grace!

The problem of Galatians

BUT, Now, we see the great problem, a very foolish problem of the Galatians.

Despite the fact that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as given from God by faith in Christ, they thought it was something they have gained.

In other words, they thought this benefit of salvation is something they can enjoy as the result of their work. They were thinking that, for them to enjoy the benefit of salvation, their work and commitment must be included on top of the gospel of Christ.

So, we can see the details of the problem in verse 3.

Verse 3.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In this verse, two noticeable verbs are "begun" and "being perfected", and we can see Paul uses this pattern of the verb in Philippians 1:6, where he says,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So, here, Paul is suggesting God's work of salvation, as a long journey, which has a starting and endpoint. And in light of this understanding of salvation, the problem of the Galatians was that they thought they can complete this long journey of salvation not by faith, but by their effort and work!

And this kind of understanding is a big problem, because, if we say, we need our work to complete what Christ has begun, this is saying that, the work of Christ is not finished. (The work of Christ is not good enough to complete the salvation) and therefore, we need to add our work to complete it.

이제 사도 바울이 2 절과 5 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말씀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 안에서의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은 거저 주시는 복음의 은혜의 결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

그러나 이런 복음이 밝히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매우 어리석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생각했고, 구원이란 자신의 수고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문제의 디테일을 3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3 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동사는 "시작하였다가"와 "마치겠느냐" 입니다. 이런 단어의 패턴을 바울이 빌립보서 1:6 절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를 통해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이란,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긴 여정과 같은 것이며, 이런 이해 가운데 나타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긴 구원의 여정을 믿음이 아닌, 자신의 공로와 수고로 완주/완성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이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는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며, 결국 그 위에 내 공로를 더함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This is not only about losing Christ, who is the firm ground of our salvation, but this is also insulting the perfect work of Christ! And this is why, we should really despise and reject, such understanding of salvation.

Now, you might be wondering, “what is the point of my commitment and my effort and work as a Christian, if we are saved by faith alone, and grace alone? Does this mean we are not to make any kind of Christian commitment? Does this mean we don’t have to commit ourselves to come to church every Sunday or make a financial commitment to the church?”

We need to understand that, because we are saved by faith alone, this does not mean we are to deny our Christian commitment and work.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work, we need to see our work as the result/fruit of salvation, not as the mean of salvation. In other words, the reason for our Christian commitment is not to earn our salvation, but it is a fruit that is produced by grace.

To give you an example. Let’s say I was living a life of hardship because of the great debt, I cannot repay. And one generous person pays off my debt out of his love and generosity. Knowing and realizing the great compassion and generosity that this person would lead me to action. This would lead me to greatly appreciate and give thanks to the person, so, this would lead me to at least, write a big “thank you” card. And this would lead me to treat others with such compassionate and generous hearts as well. So, knowing and understanding the generous love and compassion of this person would lead me to respond in a certain action.

In the same way, as we are saved by faith alone, and as we understand God’s great compassion, love and mercy, this would lead us to a life of commitment. This is the very principle that Paul is suggesting in 1 Corinthians 15:10 and 2 Corinthians 9:8. So, if you want to study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grace and work, I commend you to read these two verses.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완전한 기반 되신 그리스도를 잃는 것 뿐 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는 불완전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인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와 수고를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한다면, 그 어떤 수고도 무의미한 것이며, 교회에 나와 헌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행위나 헌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의 헌신과 행위는 어디까지나 구원의 “결과/열매”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에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던 중 어떤 한 자비롭고 너그러운 분이 나의 이런 모든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갚아 줬다고 할 때. 저는 이 고통의 빚을 탕감 받은 자로서, 이분의 관대함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저는 자연 스럽게 이분의 사랑에 응답을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며, 그분께 감사사는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분과 같이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은혜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10 절과 고린도후서 9:8 절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의 원리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으며, 믿음과-행위에 대한 관계를 좀 더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두 구절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aul's solution..

As Paul writes that, it is a foolish thing to add our work on top of faith, Paul also tells us the way to avoid such foolishness.

From the middle of verse 1, Paul writes "It was before your eyes that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Paul here is really highlighting the completed work of Christ on the cross. For example, when we look at the last verb, "crucified" the Greek verb is in perfect tense. And this perfect tense is normally used to show a completed action with a continuing result.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the perfect tense. When I say "The people have built the Harbour Bridge in 1923." We see, the action of building the Harbour bridge is a completed action, where it was finished a 100 years ago. But we see, the result of this action is still in effect, where people in Sydney are still using this bridge to cross the Harbour.

Like this example, when the verb "crucified" is in a perfect tense, this is to show Jesus' completed work on the cross, which has a continuing result.

In other words, this shows Jesus' completed / all-sufficient work on the cross, where he was the one, died on the cross once-for-all to pay the penalty of our sin. And this means there is nothing else for us to add, on top of this work of Christ, because Jesus did everything necessary for our salvation!

And in this verse, Paul also mentions that this work of Christ on the cross was publicly portrayed.

The Greek word for "portrayed" was normally used in the context of advertising, like a big public notice board to show that property was up for sale. So, Paul here is saying that this all-sufficient work of Christ was well revealed to us to see! John Stott's comment. The good news about Jesus, is not an invitation to us, to do anything, but a declaration of what God has done

It is a declaration of what God has done! All we need to do is to see and engage our eyes on this work of Christ and trust and rely on this all-sufficient work of Christ to save us from sin.

And Paul is saying that this is the only way of avoiding foolishness!

어리석음을 피할 해결책.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이 1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 말할 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완료형 동사로, 이 동사는 보통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할 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지금 까지도 유효한 완성된 공로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며 완전한 공로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1 절에서 또한 말씀하기를, 이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엇을 광고한다는 배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요점은, 이런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가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John Stott 라는 주석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무언가를 더 추가 하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하신 일에 대한 선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선포를 보고 깨달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닌, 이런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만을 밝히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Where is our assurance?

When we look back on our journey of faith, there are ups and downs, and there are times we struggle and lose the assurance of salvation. The foolish mistake – trying to find the assurance through our performance: That is... If I become a better Christian, I would be able to find greater assurance.

But Paul tells us that, it would be a foolish thing to find the assurance of our salvation through our achievement, while there is another greater way to find assurance through Christ!

If you are struggling, look to Christ, who i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Look at his Cross, and look at what Christ has done for unworthy sinners like us. And as you see and rely on this merit of Christ alone by faith. Then you will find the sure ground, the sure assurance of our salvation.

구원에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며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구원은 확실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한 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확신을 얻으려는 수고는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에 불확실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 12:2).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공로를 밝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그 분명한 기반과 확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